



# 회원들을 위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는

## 양산지부



양산지부는 95년 2월 설립된 신흥지부로써 그 전통은 깊지 않지만, 50여명의 회원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지부장을 중심으로 각종 돼지고기 홍보활동을 비롯, 시사업, 주문배합 사료 생산 등과 여러 가지 회원들을 위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는 활동적인 지부이다.

지난 3월 14일 양산시의 중심에 위치한 성북면에서 양산지부는 '성북면민의 날' 행사의 가장 큰 기획의 하나로써 돼지고기 시식회를 마련하였고, 10마리의 돼지를 바베크와 수육으로 준비해 양산시의 시민들에게 돼지고기 맛의 진미를 보여주었다.

회원들과 부녀자회를 중심으로 수많은 시민들에게 돼지고기와 주류, 기타 음식들을 내놓은 이날은, 누구든지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가 음식을 먹어볼 수 있어 그날 하루 시민들은 축제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었다.



▲지난 3월 14일 경남 양산시 '성북면민의 날' 행사에서 열린 돼지고기 시식회

### 회원들이 전체 사육두수의 70~80% 사육

양산에는 현재 100여 양돈농가가 있는데 그 중 절반정도인 48농가가 양산지부의 회원으로 있으며, 본회 회원들이 사육하는 돼지두수는 전체 사육두수의 약 70~80%를 차지한다고 한다.

현재 회원들 중 1,000두 규모의 농가가 가장 많다고 하며, 4,000~5,000두의 돼지를 키우는 10

여 농가가 있는 등, 회원들의 평균 사육두수가 1,500두 정도로 타 지역에 비해 대규모 사육이 많은 편이라 한다. 회원들이 1달에 출하하는 돼지두수는 약 3,500두 정도이다.

양산지부의 임원은 지난 3월 경남도협의회장으로 선출되어 도협의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서춘계 제5대 지부장을 비롯, 감사 2명, 총무 1명, 부총무 1명, 이사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명의 이사들은 지역별로 안배되어 있다.

경남도협의회장이기도 한 서춘계 양산지부장은 경남도의 ▶  
규격돈 생산 자금 지원에도 많은 노력을 했다.

하지만, 서춘계 지부장은 지금은 지부가 여러 가지 사업을 구성, 실천하고 있으나, 양산지부가 최근 계속되는 도시화와 IMF 상황을 맞아, 작년 한 해 15명의 회원이 줄어드는 등, 그나마 최근들어 느껴지는 다소의 경기회복이 아직 경남지역에는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하며, IMF의 영향이 다른 어느 곳보다도 커 그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역중에 한 곳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회원을 탈퇴한 회원농가중 5농가는 아예 양돈업 자체를 폐업했다고 한다.

### 울산지부와 공동으로 자가배합사료 생산계획

양산지부는 현재 본회 울산지부와 함께 주문 배합사료 생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부는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울산 축협중앙회 사료공장과, 이미 주문배합사료를 급여하고 있는 본회 홍성지부를 견학한 바 있다.

이것은 한국양돈진흥사업소에서 공급받은 프리믹스(영양소 조절제)를 5% 정도 첨가하고 옥수수와 대두박 등을 혼합하여 주문배합사료를 만드는 것으로써, 이것이 실행될 경우 회원들은 일반사료보다 포당 1,000원씩 더 싼 가격으로 사료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분뇨처리, 해양투기에서 토지환원으로 전환 노력

한편, 지부는 기본적으로 매월 빠짐없는 월례회의 개최와 함께, 1년에 한 번 지부 결산총회를 가지고 지역 양돈관계자 및 회원들 부부동반 모임과 회원들의 단합과, 지부의 위상을 높이고 있기도 하다.



또한, 양산지부의 회원들은 현재 남부지역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는 분뇨처리방법인 해양투기를 통해 분뇨를 99%이상 처리하고 있다. 양산 근교 지역에서는 전문 해양투기 업체가 5군데 정도 있으며, 그 비용은 t당 약 13,000원 정도 소요되고 있다고 한다.

양산지부는 95년 2월 설립된 신흥지부로서 그 전통은 길지 않지만, 50여명의 회원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지부장을 중심으로 각종 돼지고기 홍보활동을 비롯, A.I.사업, 주문배합사료 생산 등과 여러 가지 회원들을 위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는 활동적인 지부이다.

그러나 서춘계 지부장은 이 해양투기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처리방법이기는 하나,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말하며, 분뇨의 토지환원을 위해 전답(주로 벼 수확후 복토하는 당근밭)에 분뇨를 뿌리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서춘계 지부장은 지난해 봄부터 5t짜리 트럭 1,000대분 이상의 분뇨를 전답에 뿌렸으며, 그 수확량이 더욱 좋아 경종농가에서도 비료값의 절약 등으로 좋은 호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지부는 여러 가지 사업에 우선하여 '양산 A.I센타'를 운영함으로써 회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지부운영을 원활히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3년전부터 운영해 오던 양산지부 A.I센타는 자체운영을 함으로써 다소 활동이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1년전부터 전문인력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그 활동범위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 지부장이 거는 기대가 크다.

### 최고의 조건을 갖춘 '양산A.I센타' 운영

양산지부의 대표적인 사업은 현재 지역돼지들의 균일화와 고능력화를 위한 A.I센타 운영을 들 수 있다. 지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현재 양산지역은 물론 주위의 여러지역에 그 영향을 키워나가면서, 양돈농가의 인공수정률

향상과 기존의 돼지 인공수정 시장의 판도를 바꾸어 나가고 있다.

양산A.I센타가 이렇게 회원농가 및 지역 양축가에게 큰 호응을 얻는 이유는 세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첫째, 최고의 비육돈, F1 순종을 위한 고능력 수퐁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 최고급 품질의 최신의 일회용 주입팩과 주입기를 사용한다는 것이며, 셋째, 젊고 뛰어난 수정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신속한 정액의 공급과 정확한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 '양산A.I센타'의 젊은 수정사들. 좌로부터 김길재씨, 이승관씨, 손재환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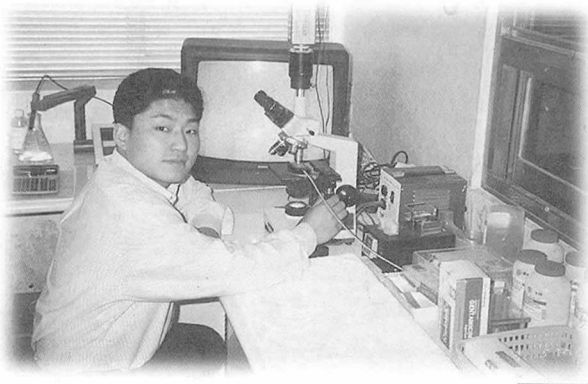
양산 A.I센타가 보유하고 있는 수퐁지들은 모두 한국종축개발협회에서 능력을

검정받은 뛰어난 수퐁지들으로써 비육돈 균일화로 도체등급의 향상 및 각 농가에 구비된 모돈에 맞는 용돈 공급체계를 만들어, 회원농가들의 수익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관계자는 말한다.

현재 양산지부의 회원들은 높은 등급을 받는 비육돈 생산과, 뛰어난 F1을 생산키 위해 양산 A.I센타의 정액을 찾고 있으며, 한 번 사용한 농가에서는 높은 성적으로 인해 100%의 인공수정으로 점차 바뀌고 있다.

### A.I센타 활성화와 자가배합사료 생산으로 지부활성화 노력할 터

서춘계 지부장은 지부의 운영에 가장 어려운



◀정확한 검사와 연구를 통해 고품질의 정액을 보급한다.

▼손재환 수정사가 '양산AI센터'가 자랑하는 정액을 들여보이고 있다.

젊은 지부의 자금사정이라고 전하며, 회원들의 회비에만 의존해 지부를 운영하기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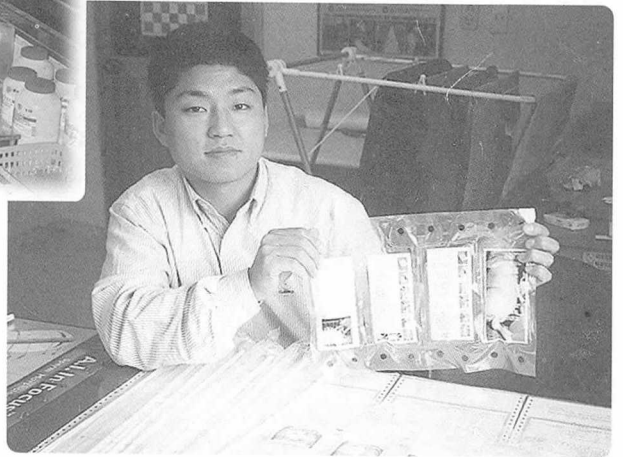
양산지부는 지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동으로 출하되는 돼지들에 대해, 출하두당 500~700원의 지부운영비를 걷고 있으며, 이후 앞서 말한 주문배합사료 공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때 사료공동구매 수수료를 0.5% 정도 뺄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지부 자조금들이 공동출하와 공동구매로 인하여 생기는 차액 중의 일부분으로써, 회원농가들에게는 공동계약 사업이 상당한 이익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춘계 지부장은 본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조금 제도에 관해 “양돈인들의 자조금제도가 모든 양돈인들의 참여하는 제도가 되어야만 할 것”이라 강조하면서, 회원들만이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옳바르지 못하다고 말했다.

또한 돼지콜레라 박멸문제에 관해서 서춘계 지부장은 “사실 현실의 여건으로 볼 때 쉽진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해내어야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며, 돼지콜레라 박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기도 하였다.

## 회원들의 단합위해 더욱 노력할 것

서춘계 지부장은 이후의 지부는 AI센터의 활



성화, 주문배합사료 생산, 돼지고기 홍보활동에 주력을 다할 것이라 한다.

또한, 양산지역은 크게 다시 3지역으로 나뉘어져 축산계 조직이 구분되어 있다고 전하며, 이 조직들끼리의 반목을 없애고 협회가 모두를 포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 한다.

양산은 도시화의 물결 속에서 광역시인 부산의 인근에서 점점 더 위성도시로 발전되면서, 양돈농가의 수와 양돈산업의 규모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멀리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양산지부는 회원들의 단합과 지부장 및 임원들의 공동의 노력으로 어느 지부보다도 더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지부장이 지부의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양산AI센터'에 찾아가 본 필자의 소감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장소'였다. 정신없이 바쁘고, 체계적으로 뛰어 다니는 그들의 모습속에서, 서춘계 양산지부장의 기대와 다르지 않게 AI센터 사업은 끊임없이 성장을 이룰 것으로 여겨지며, 젊은 수정사들의 패기어린 눈빛에서 양산지부의 밝은 미래가 보였다. <취재>조진현 <양돈>